

민주당 공천 이전투구 역풍 非민주당 후보 10명 勢확산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판세

6·2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과 非민주당의 돌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의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후유증이 심각해졌다. 공천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잡음과 파장으로 얼룩지면서 이로 인한 '민심이란 현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거세게 일었던 무소속 바람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남구 황일봉 광산 송병태
나주 주항득 장성 이 청
신안 박우량 강진 황주홍
화순 임호경 곡성 허남석
광양 이성용 구례 전경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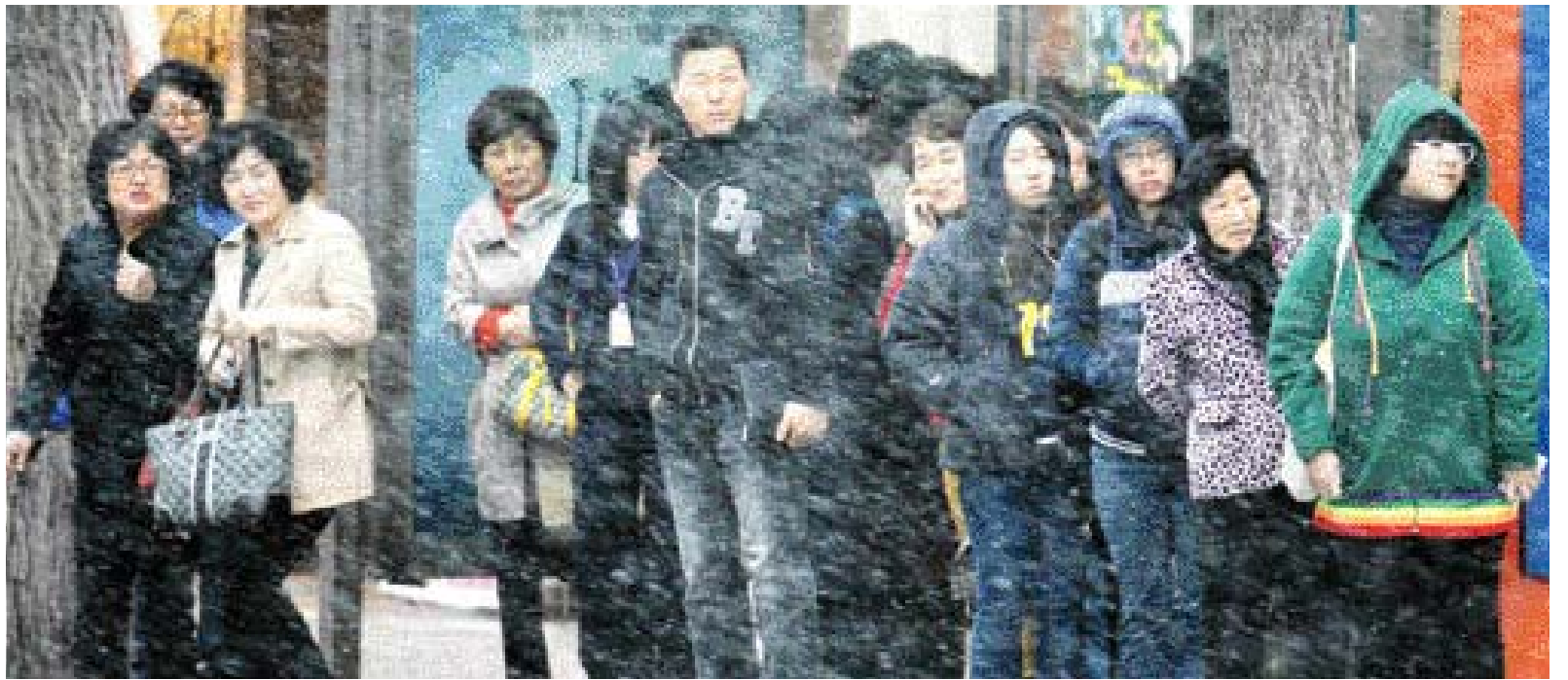
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원칙과 기준 없는 부실한 경선에 따른 지역정치권의 반목과 민심 분열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의 약진이 점쳐지고 있다. 현역 단체장 외에는 송병태 국민참여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와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 임호경 전 화순군수, 신정훈 전 나주시장의 부인 주항득 후보, 전경태 전 구례군수 등도 경쟁력 있는 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도 전직 자치단체장을 지내고 경찰서장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서 지지세를 적지 않게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이 모두 끝나는 이달 말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등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후보와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경선잡음'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이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민주당 견제 바람몰이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견제를 기치로 무소속 후보와 비 민주당 후보들이 연대를 형성할 경우 비 민주당 바람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예상외로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번 지방선거 판도를 뒤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일부 무소속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큰데도 중앙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단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맞설 전략을 강구하고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4년만의 4월의 눈

광주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1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갑작스런 눈이 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4월에 광주에서 눈이 내린 것은 지난 1996년 4월 2일 이후 처음이다. 기상 관측 이래 광주에서 가장 늦게 눈이 내린 것은 1988년 4월 23일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돼 눈을 동반한 꽃샘 추위가 몰아쳤다"며 "15일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학재단 설립 등 인재육성 열정

낙후 전남교육 살아났다

수능 성적 크게 향상

낙후된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한 전남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관련기사 6면>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 대대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던 강진·고흥·영광·장흥·장성·영암·화순·담양 등의 학생 성적이 2010학년도 수능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2등급 증가율 상위 30위내에 고흥·영암·화순·영광·장성·장흥 등 6개 군이 이름을 올렸다. 1·2등급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1등급(전체 상위 4%) 비율 상위 30개 시·군·구에는 장성(전 영역)·강진(수리가)·담양(수리나)·나주(외국어) 등 4곳이 포함됐으며, 표준점수 전국 30위내에는 순천(언어·수리나)·담양(수리나·외국어)·화순군

전남 1·2등급 비율 증가 30위내 지역

지역	영역	증가폭	순위
고흥	수리나	4.2%P	2
	외국어	2.6%P	10
화순	외국어	3.5%P	5
	수리나	2.0%P	16
영광	외국어	2.9%P	7
	언어	4.1%P	14
영암	언어	4.7%P	9
	수리나	1.4%P	27
장흥	수리나	2.6%P	11
	언어	3.0%P	20
장성	수리가	2.3%P	25

(외국어) 등 3개 군이 진입했다.

실력이 향상된 이들 시·군 중 특목고나 명문고가 단 한곳도 없는 강진군의 노력이 가장 눈에 띈다.

강진군은 2005년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 15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매년 20억원 안팎을 학생·교사 해외연수와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등 교육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강진군이 지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8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매년 정월미달 사제를 겪은 강진지

역 5개 고교는 정원이 넘치고 학급수가 늘어 학교 통폐합 방침이 백지화됐으며,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률도 높아지고 있다.

장흥군과 진도군도 지난해 각 10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했으며, 화순군장학회는 매년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담양군은 45억원 규모의 장학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헌신의 힘을 쏟고 있다.

영암군도 2008년 군민장학회를 설립한 뒤 20억원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해 우수학생 학비지원 등 인재 키우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김승희 교육국장은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것은 지자체와 지역민, 교육당국이 힘을 합쳐 추진한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학년도 수능에서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등급 비율 1위를, 전남은 13위를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국 7.1 강진 400여명 사망

중국 북서부 칭하이(靑海)성 위수(玉樹)장족자치주 위수현에서 14일 오전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 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8천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지면과 비교적 가까운 지하 33km에서 발생한 이 지진으로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현지 가옥들이 붕괴했고 일부 학교 건물도 무너져 인명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학교는 등교시간이 빨라 아침 일찍 학교에 갔던 초등학생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안함 함미 오늘 오전 인양

천안함이 침몰 20일 만인 15일 함미 부분이 먼저 인양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기상 호전시 오늘 오후까지 함미의 세 번째 체인을 연결할 예정이다"며 함미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도 "대청도에 피항해 있던 함미 인양선 '유성호'가 오늘 오후 1시30분께 인양작

업 현장에 도착함에 따라 3번째 체인 연결작업을 시작했다"며 "오늘 자정까지 체인 결박(연결) 및 안전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상악화로 대청도로 피항했던 민간 인양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작업크레인선을 이용해 함미 부분이 안착된 해상으로 복귀해 세 번째 체인 연결 작업을 시작했다. 해군의 해난구조 전문장교인 송무진 중령은 "작업 소요 기간은 기상이 양호할 경우

반나절에서 하루가 예상된다"면서 "해수 유입 등으로 1천889t인 함미의 하중을 2시간가량 자연배수 및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낸 뒤 95t으로 줄여 인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과 민간 인양팀은 세 번째 체인 연결작업을 끝내더라도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끌어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군은 특히, 함미의 절단면을 전면 공개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제한적으로 공개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Energize your Mind & Body
(Physiological Outdoor Fitness Facility)
생활체육의 새로운 문화...
(주)케이엘에스가 열거합니다.
www.kls.or.kr

KLS 062-605-1114